

치유에 대한 통일교적 접근

문 선 애* · 오 택 용** ·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치유에 대한 통일교의 교리적 근거와 그 방법론적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먼저 치유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기초하여 건강과 질병 및 치유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를 창조, 타락, 복귀 그리고 수수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치유에 대한 통일교의 교리적 근거를 수수작용의 관점으로 설명하였고, 상담이론으로 방법론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교는 가정생활을 중시하여 축복결혼을 권장한다. 이 연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부부치유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초점을 맞추었다. 치유를 전제로 할 때, 교육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는 부부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맺어진 인연이고 우주적 차원의 가치를 지닌 만남이라고 본다. 부부는 단순히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 ‘우리’를 이룬 것이다. 이 연구는 통일교의 부부치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트만의 이론에 근거한 사랑의 지도와 감정은행 및 부부관계 향상의 위한 대화법을 제시한다. 가트만은 부부의 문제를 부부 사이의 대화법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부부상담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치유효과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치유, 수수작용, ‘우리’, 사랑의 지도, 감정은행

I. 서론

지금 한국에는 ‘상담’과 ‘힐링’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상담과 치유를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상담이란 낱말은 문자적으로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하지만,

* 제1저자: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E-mail: sunaemoon@gmail.com

** 교신저자: 선문대학교 순결가정문화학과/ E-mail: taekyongoh@hanmail.net

학문적으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전문적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힐링이란 한국어로는 치유를 말한다. 서울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 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¹⁾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힐링을 “기쁘기 위해 심신에 위안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현대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담과 힐링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치유를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발문을 배부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치유에 대한 종교의 행위는 환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위안을 주는 수준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치유에 대한 종교의 관심은 대체로 질병과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질병, 고통, 죽음 등에 대한 종교적·도덕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사회에서 치유의 문제가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해 의학과 종교에서 각각 역할기대를 상정한다면, 양자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치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해는 의학적 접근 방식만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건강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와 그것을 형성시키는 가치체계,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질병과 건강을 단순히 신체에 국한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합니다.²⁾

종교를 절대 신념체계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는 질병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접근과는 상당히 다르다. 통일교도 질병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여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치유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기초하여 치유를 이해한다. 다음으로 건강과 질병 및 치유를 연관하여 통일교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치유에 대한 통일교의 교리적 근거와 그 방법론적 이해를 시도한다. 통일교는 이상가정을 기초로 하여 이를 확대한 이상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부치유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SBS에서 2011년 7월 첫 회를 방영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예능프로그램임.

2) <http://mail.daum.net/hanmailex/Top.daum#ReadMail>(한국종교교육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원고 청탁서 2014.09.16 08:52 발송).

II. 치유에 대한 통일교의 관점

1. 치료와 치유, 건강과 질병

치료와 치유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뜻을 지니는가? 사전적으로 치료와 치유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하다” 또는 “병을 고치다”라는 뜻이다. 치료(therapy)는 의사가 주로 약물이나 수술로 병을 고치거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와 환자가 시술자와 피시술자로 나뉘며 의사가 주도하는 것이 치료이다. 치유(healing)도 심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치유는 인간에게 내재된 힘을 살려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치료가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비중을 두는 개념이라면, 치유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치유력에 의한 성찰을 통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둔 말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자신의 사고방식, 일상적 삶의 방식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과 감정, 인간관계, 가치관 등 삶의 근본자세를 돌아보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면 통일교는 건강과 질병 그리고 치유를 어떻게 보는가? 통일교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였으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복귀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통일교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로 나누어 설명한다.³⁾

이에 따라 건강, 질병, 치유를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는 창조원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창조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실체대상인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천리법도에 따라 살며 성장하도록 되었다. 육신과 영인체는 각각 양적 영양소와 음적 영양소를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질병이란 타락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을 떠나 사탄의 주관권에서 살며 이기적인 욕심과 영적인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적 질병과 고통에 시달린다. 오늘의 인류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치유란 복귀원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죄악을 청산하고 선을 실천하면서 영육 아우른 건강을 회복해야한다. 사탄의 주관권에 있는 인류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류로 하여금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를 넓은 의미에서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치유는 삶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자신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가치관, 사상과 이념 등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방향을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즉,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종교적 치유이다. 통일교의 치유는 회

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6).

심을 통한 하나님 주권권으로의 복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순결한 사랑을 중심한 성장과 성숙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궤도를 벗어난 사람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

2. 통일교 치유론의 요점

1)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

통일교는 모든 피조물은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중심하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만물의 관계로 유형화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관계적 이해이다. 인간은 이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한다. 올바른 관계란 주고받는 작용, 곧 수수작용(授受作用)을 잘 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생활을 하는 인간의 사명이란 하나님과의 수수관계, 인간 사이의 수수관계, 인간과 만물 사이의 수수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관계 중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된다. 이어서 형제와 관계를 맺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인간은 다양한 관계에서 수수작용을 잘하여야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상하관계인 부자관계, 전후관계인 형제관계, 좌우관계인 부부관계에서 원만한 수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다. 참사랑에 중심을 두고 수수작용을 해야 가족구성원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⁵⁾

통일교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가정의 실현과 그 이상가정의 확대에 의한 천국의 창건을 추구한다. 이상가정을 확대하여 나아가면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을 실현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가정에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맛보고, 자라면서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혼 후에는 부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홀로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 사랑은 상대와의 수수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수작용을 할 상대가 필요하다. 이성에 대한 사랑을 이루려면,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원만한 수수관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참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4) 위의 책, 29-50쪽.

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서울: 성화출판사, 2000), 158쪽.

것이고, 참사랑의 가치관은 상대를 중심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부모를 부모 되게 하는 것은 자녀요, 자녀를 자녀 되게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와 형제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의 존재근거도 무시된다. 나를 주장하기에 앞서 언제나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배려하는 것이 참사랑을 중심한 가치관이다.

통일교는 창조본연의 인간관계란 개인주의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본연의 인간은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가 동기가 되지 않고 부모가 동기가 된다. 부모의 인연을 따라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태어난 자녀에게서 ‘자기’라는 개념은 애초에 없었다.⁶⁾

2) 이상가정의 해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류 시조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는 것은 수수작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수수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이 온전한 수수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가족관계에서도 각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불화와 갈등과 단절이 상존한다.

인간은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가족과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기본적 관계를 가정에서 예비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러기에 관계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에서 식구 사이에도 온전한 수수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자녀도 온전한 수수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인간은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해왔고 가정보다 개인을 중시해 왔다. 그런데 개인 중시가 자기 이익중시로 변모하였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였다. 개인 중심적 삶의 방식은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중심적 사고는 사랑에 기초한 가족관계를 이기적 관계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급기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산되고 가족관계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다고 본다. 타락의 결과로 거짓사랑을 중심한 프리섹스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자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에서도 화합과 통일을 이루게 해주는 참사랑 대신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중심한 사고인 자체자각을 상속받아 살게 되었다.⁷⁾ 그래서 유혹, 화, 혈기, 교만 등을 표현하며 살아가

6) 위의 책, 162쪽.

7)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371권, 275-278쪽.

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치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이상가정의 회복

통일교의 가정 중심한 사유는 관계성을 강조하고 삶의 터전인 가정이 개선되어 이상가정을 이루어야 그 이상가정의 확대로 형성된 세계도 이상세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불화와 갈등과 단절이 상존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그러므로 불통하는 가족관계의 소통을 위하고 해체된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 치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자.

첫째로 타락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양심회복을 중시한다.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이다.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 이 양심은 인류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의 마음이다. 이 본성의 마음은 귀하고 귀한 것이다. 선과 악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이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양심이다. 인간이 양심의 인도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은 깨끗해질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심교육의 현장도 가정이 된다.

둘째로 통일교는 성적인 순결을 강조한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순결한 사랑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순결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양심이 마비되고 바른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다. 인간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이상가정도 이루어지고 사회도 밝아진다. 이상가정과 이상사회를 이루는 지름길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셋째로 축복결혼이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통일교에서 결혼식이란 타락한 인간이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 의식으로서 흔히 ‘축복식’ 또는 ‘축복결혼식’으로 불린다. 통일교의 축복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식이다.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부간에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형제간에 소통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면서 살겠다는 의식이다. 통일교는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축복결혼식에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가정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상가정 완성을 위해 하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6), 32쪽.

Ⅲ. 치유를 위한 예방적 교육과 상담

1. 치유를 위한 예방적 교육

1) 하나님의 속성을 닮기 위한 교육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에게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통일교의 교육과 상담이란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 상담을 비교해보면, 교육은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담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치유를 위한 활동이되 문제발생 이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의 교육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어 3대 축복이란 과제를 받았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교육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해서는 3대 축복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3대 축복은 통일교 교육론의 교육이념이다. 이 교육이념에 따라 개체완성을 위한 심정교육, 가정완성을 위한 규범교육, 주관성 완성을 위한 주관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들을 교육의 형태라고 한다. 심정교육은 마음과 몸이 온전히 성장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치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다. 규범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는 가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도덕윤리의 감각을 계발하여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주관교육은 인간이 만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세계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다.⁹⁾ 이러한 세 유형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심정교류를 위한 교육

통일교의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선하고 인격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이 사는 이상사회를 심정문화세계라고 본다. 곧,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심정이 통하는 세상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상사회란 심정으로 교감하고 심정을 주고받으며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나 심정문화는 한국사회에 형성된 정(情)의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9)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345-374쪽; 이재일, 『통일교 교육론의 성찰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4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81쪽.

국어사전에서 정이란 “오랫동안 지내 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마음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의 하나, 곧 이지적인 요소에 대비되는, 감동적인 요소”를 말한다. 한국인의 ‘정’의 특성은 측은지심과 유사한 사랑의 감정이다. “한국인에게 정이 많다”고 할 때의 정은 심층적 성격 특질로서의 정 또는 특정 상대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생겨난 대상지향적 정을 말한다.¹⁰⁾ 이러한 정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한국인은 너와 나의 관계를 ‘우리’라는 공생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유방식을 바탕으로 정과 정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인간은 관계 맺음의 양쪽이 분리될 수 없다고 전제하느냐, 아니면 분리될 수 있다고 전제하느냐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이 관계의 양쪽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국인에게 정은 ‘우리’라는 전체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개체나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서를 말한다. 그런데 ‘나’와 ‘너’는 분리될 수 없지만 구분되어 존재하는 까닭에 미워하고 고와하는 ‘나’와 ‘너’는 ‘하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다... ‘나’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 고음이고, 싫어하는 것이 미음이다. 나와 ‘너’는 고음이 미음이 되고, 미음이 고음이 되는 전환 관계를 통해 ‘우리’라는 전체를 유지한다... 이러한 고운 정은 ‘전체에 근거한 좋아함’이고, 미운 정은 ‘전체에 근거한 싫어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이 관계의 양쪽을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사랑과 증오의 세계’는 관계의 양쪽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개인에 근거한 좋아함’이고, 증오는 ‘개인에 근거한 싫어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¹⁾

양쪽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은 ‘우리’라는 공생체의 정서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고운 정 미운 정”이라는 표현은 정이란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정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우리’라는 공동체가 개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하게 한다. 이러한 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보살피고 돕는 관계적 역동성의 근거가 된다. 결혼생활이 어려워도 정든 부부는 ‘우리’를 위해 미래를 기약하고 서로 존중하며 노력한다. 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상대를 염려하며 상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선행의 이면에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정의 문화를 표현하는 핵심적 주제가 심정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속내를 뜻하는 심정은 한국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정서이다. 통일교는 이를 인간의 영역을

10)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6), 36쪽.

11) 최봉영, 『주체와 욕망』(서울: 사계절, 2000), 81-83쪽.

넘어서는 하나님 세계에도 적용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에서 핵심 부분이 심정이고 이는 창조의 동기라고 보는 것이다.¹²⁾ 그리고 서로 상대의 심정에 공감하고 보살펴주는 문화로 이루어진 세계 곧, 심정문화세계를 이상사회라고 본다.

한국어에서 심정은 대상에 대해 발동된 감정, 의지, 관심 등을 포함하는 마음 상태 또는 정서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심리경험이다. 심정은 발동된 감정이고 그 감정이 발동된 배경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포함되며, 자기 신세 조망이 포함된다.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이러한 심정에 크게 기초하고 있다. 한국인은 행동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심정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내밀한 마음상태에 공감하며 이를 배려하는 것을 중시한다. 한국인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주의 깊게 읽고 이에 반응하는 심정교류 양식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일심동체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의식이 형성된다.¹³⁾

통일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여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개인의 완성으로 본다. 통일교는 심정을 신과 만물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통일교가 지향하는 심정문화는 심정을 중시하고 이 심정의 수수작용이 자연스러운 사회이다.

통일교는 심정을 느끼고 심정으로 소통하려면 아동기에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본다. 심정의 문화는 가정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전승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삼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심정교육을 위한 최상의 학교가 된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모든 노인들을 마치 그들이 자기 조부모인 것처럼, 모든 어른들을 마치 자기 부모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마치 자기 형제자매인 것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볼 것이다.

3) 부모의 사랑을 통한 교육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아동의 정서와 인간관계 형성에 결정적이다. 아동에게서 모성은 안정감과 보호감으로 작용하고 모든 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질료가 되고, 부성은 존경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사랑과 두려움의 복합감정이다.¹⁴⁾ 이처럼 아동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인간관계의 형성과 그 유지에서 필요한 터전을 닦아 나아간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모성애를

1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58-61쪽.

13) 주재완, 「심정의 개념에 대한 소고」, 『통일신학연구』, 11집, 2007, 73-75쪽.

14) 이계학,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10집, 1980, 동덕여자대학, 114-115쪽.

통한 애착감과 부성애를 통한 애착-분리감이 종합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간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감싸주는 어머니를 믿고 의존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엄격함에 긴장하며 냉철한 사리판단을 배우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성애와 모성애는 교육적 작용을 한다.¹⁵⁾

통일교는 가정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본다. 통일교는 이상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삶과 사회를 규정하고자 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면서 심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학교이고, 천국인을 길러내는 훈련장이라고 본다. 비록 현실의 가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체일지라도 사랑과 심정을 경험하고 배우는 가정 적합한 훈련장이라고 본다.

통일교는 세상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상사회도 완성한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닮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게 된다고 본다. 즉, 유기체적 사회를 말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면에서 보면, 통일교가 말하는 가정과 사회와 윤리는 이상적인 가정이고 이상적인 사회이며 이상적인 윤리이다. 하지만 현실의 가정과 사회와 윤리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상세계의 이상적 가정, 사회, 윤리는 현실에 사는 인간에게 비현실적인 것이다. 아직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교육공간으로서의 가정이 제 역할을 해야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2. 치유를 위한 부부상담

1) 상담의 전제

통일교의 부부상담은 종교적 정체성과 결혼관을 전제로 한다. 먼저 통일교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역할, 목표, 가치 영역에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과 이에 부합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말한다. 종교인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다음으로 통일교인의 결혼관이 중시된다. 통일교에서 축복결혼은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인류가 참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인류는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 더구나 삶의 터전인 가정이 온갖 문제에 휩싸여 있다.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인간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립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통일교는 이와 같은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본다.

15) 이재일, 『루돌프 오토의 종교체험에 담긴 교육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254-258쪽.

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62, 497-498쪽; 통일사상연구원, 775-776쪽.

이 가정은 남녀가 순결한 사랑으로 이루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룬 가정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국가, 세계의 순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의 축복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너-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하나님을 중심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우리이다. 통일교인은 축복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상세계와 인류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로서 사랑과 효를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은 마음과 몸을 갖고 닦으며 순결하게 살아 축복결혼에 참여하여 부부가 화합해야 한다. 축복가정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부부가 이루어가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통일교 가족상담의 목적이다.

3. 상담의 방법

상담방법으로는 존 가트만(John Gottman)¹⁷⁾의 상담기법을 사용한다. 가트만의 상담기법은 구조적 가족치료(Structural Family Therapy)와 경험적 가족치료(Experiential Family Therapy)에 부류에 속한다. 구조적 가족치료란 환경변화가 개인의 지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족구성원간의 지배적 관계 규칙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 특유의 갈등과 행동의 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과거보다 ‘지금-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¹⁸⁾ 이러한 두 가족이론을 바탕으로 가트만은 사랑의 지도(Love map), 감정은행(Emotional Bank) 그리고 4가지 관계향상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사용한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의 자세로 세 가지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둘째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셋째는 부부는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자세로 상담에 참여하되 개별 부부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참자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개발해 나아간다. 통일교인의 상담에는 물론 신앙을 전제로 한다. 가족치료를 위한 상담기법을 사용하지만 부부 사이의 신앙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17) 가트만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J. M. Gottman and N. Silver,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ew York: Three Rivers Press, 1999); 임주현 역,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서울: 문학사상사, 2002). J. M. Gottman and J. DeClaire, *The Relationship Cure*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1). J. M. Gottman and J. DeClaire, *10 Lessons to Transform Your Marriage*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6); 정준희 역,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서울: 해냄, 2007).

18) 김유숙, 『가족상담』(서울: 학지사, 2012), 201-202, 245쪽.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가트만¹⁹⁾이 개발한 사랑의 지도에 따른 설문으로 시작하며 감정은행을 확인하면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아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설문지에 의해 배우자의 세 부사항을 묻고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고 그림으로써 서로 배우자에 대해 많이 모르고 오해해왔음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으로 감정은행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거나 빚을 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좋거나 나쁜 기억을 저장해 둔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부부가 감정의 저축 계좌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좋은 사건과 기억을 저장하고 싶을 것이다. 감정은행에 좋은 감정이 많으면 실수를 할지라도 상대방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트만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이론에 따라 대화를 시연한다. 이는 부부의 대화 가운데에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올바른 대화를 연습하도록 인도한다. 가트만은 부부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므로 대화의 기술을 익히면 부부관계가 향상된다고 본다.

부부가 서로 마주 대하면서 상담하기 어려울 때는 무도회의 가면을 써서 대화를 유도한다. 가면을 쓴 자신과 상대방을 보면서 부부는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부끄러움과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더하여 정과 심정의 문화를 소개한다. 정과 심정의 문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한다. 여러 차례 만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여야 효과가 있다.

참사랑을 중시하고 이상가정과 이상세계를 이루어가려는 통일교인은 하나님 중심한 가정이 되는 것을 소망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부부의 정체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상담의 사례

사례 ²⁰⁾	A	B	C	D
국가배경	미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미국인 남편과 미국인 아내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부부
결혼기간	25년 이상	25년 이상	5년	20년
첫 상담	2008년	2009년	2009년	2008년
상담 회기	15회기 (15일간격)	20회기 (15일간격)	15회기 (15일간격)	15회기 (15일간격)
상담 시간	1시간 30분			

19) J. M. Gottman and N. Silver,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20) Moon Sunae, Marriage Relationship Enhancement: A Program Based on Unification Thought, Marriage

사례 A: 미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상황]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였고 아내는 살림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적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신앙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가정보다 교회에 비중을 두었으나 남편은 가정을 더 중시하였다.

[상담과정] 부부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랑의 지도로 서로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좁히기 어려워했다. 상담자는 자녀의 존재를 매개로 하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과] 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했기에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녀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상담을 종료한 이후, 2014년 여름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적용해온 관계향상을 위한 대화의 기술이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B: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상황] 남편은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으나 가부장적 결혼생활을 이상이라고 여긴다.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아내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가사에 충실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기를 바랐다.

[상담과정] 초기에는 남편과 아내를 개별적으로 상담했다. 사랑의 지도로 마음을 열며 서로를 알아갔다. 더불어 결혼할 당시 상대에게 느꼈던 감정과 신앙길에 들어선 이유 및 삶의 목표를 회상하고 말하게 하였다. 부부갈등이 심해 가면을 쓰고 대화하도록 했다.

[결과] 상담 중반부터는 이들 부부는 부드러운 대화가 진행이 되었고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2012년에 확인한 결과 부부는 별거하고 있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고 오래되었으면 치유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 초기에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례 C: 미국인 남편과 아내

[상황] 대학원생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교와 직장 외에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부부이다. 상담을 신청하였을 때, 이들은 심각한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상담과정] 사랑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감정은행에서도 비교적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상담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 그들은 젊었고 긍정적인 자세로 빠르게 배워갔다. 부부의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사례 D: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부부

[상황]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부부로 잦은 다툼을 장기간 이어온 상태였다. 이들은 한국의 작은 교회에서 함께 자라며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었다. 서로 잘 알아왔던 것 같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매우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상담과정]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명을 해보기를 바라면서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녀를 소중하게 여겼고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의지가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좁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과] 가족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랑의 수수작용에 중점을 두는 상담이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만약 소통에 대해 더 일찍 알았다더라면 갈등이 것처럼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사례21)	E	F
국가배경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 부부	한국인 부부
결혼기간	1년	18년
첫 상담	2011	2013년
상담회기	15회기(15일간격)	20회기(15일간격)
상담시간	1 시간 30분	

사례 E: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 부부

[상황]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하였다. 아내는 청소년기에 한국에 유학하여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남편은 부모가 자신의 동생에게 큰 기대를 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내성적이고 매사에 자신이 없이 살아왔다.

[상담과정] 두 사람을 따로 5회기 동안 만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상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들 부부는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결과] 아내의 이해와 인내가 남편의 적극성을 유발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문제의 골이 심각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 치유의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E: 한국인 부부

[상황] 새엄마에게서 성장한 남편과 사교적인 아내로 구성된 부부이다. 남편은 남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였고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면이 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과정] 부부 별도로 상담하였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였으나, 남편은

21) 문선애, 상담일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결혼생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상담에도 소극적이었다.

[결과] 이 부부는 현재 별거 상태이다. 남편은 직업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있다.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있어야 효과적임을 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같은 종교인이라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종교적 사명감이 투철해도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의 생각에 마음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와 문화의 차이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다. 특히, 정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한 한국인과 개인주의적인 서양인의 만남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수록 효과적인 대화법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차이도 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상대방부터 배워가며 서로 성장하는 기회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부모에 비교하여 교회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애쓴다. 그들은 종교세계의 이상적인 삶보다 현실세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였다.

IV. 결론

인간은 결과적 존재이다. 결과적인 존재인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인 궁극적 존재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악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는 이를 위한 의례로 축복결혼식을 진행한다. 가정 단위에서 새사람으로 출발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통일교는 결혼 중에서도 국제결혼을 장려한다. 이러한 결혼은 신성하고 강한 신앙심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에 참여한 다양한 나라의 배우자들이 한 가족으로 형성되면서 다문화사회를 열어갔다. 국제축복결혼에 참여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여기에 교육과 상담이 개입해야 할 여지가 있다. 교육과 상담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통일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상담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축복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을 지향하면서 축복결혼에 참여한 서양인들에게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과 심정의 문화를 맛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결혼은 하늘의 뜻임을 재확인하고 고운정과 미운정을 쌓아가는 가정생활로 안내하는 상담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숙.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2012.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371. 서울: 성화출판사.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6.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 성화출판사, 2000.
- 이계학.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10집. 동덕여자대학. 1980.
- 이재일. 「루돌프 오토의 종교체험에 담긴 교육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이재일. 「통일교 교육론의 성찰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4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주재완. 「심정의 개념에 대한 소고」. 『통일신학연구』. 11집. 2007.
- 최봉영.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2000.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6.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문선애. 상담일지.
- Gottman, J. M. & Silver, N.,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ew York: Three Rivers Press, 1999; 임주현 역.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문학사상사. 2002.
- Gottman, J. M. and DeClaire J., *The Relationship Cure*,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1;
- Gottman J. M. and DeClaire J., 『10 Lessons to Transform Your Marriage』.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6; 정준희 역.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해냄. 2007.
- Moon Sunae, Marriage Relationship Enhancement: A program Based on Unification Thought, Marriage Therapy, Pastoral Counseling and Jung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2005).
- <http://mail.daum.net/hanmailex/Top.daum#ReadMail>(한국종교교육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원고 청탁서 2014.09.16 08:52 발송).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24일 심사일: 2014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7일
연구자소개: 문선애

- ① 전공: 상담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② 관심영역: 부부상담, 성교육
- ③ 주요논저: 〈통일교 축복가정자녀의 배우자선택 유형변화와 그 의미〉, 〈자문화중심주의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 ④ E-mail: sunaemoon@gmail.com

연구자소개: 오택용

- ① 전공: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 ② 관심영역: 신약성서신학, 성약성서신학, 8대 교재-교본
- ③ 주요논저: 〈하나님의 4대 주류속성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으로 본 무형실체 세계의 인식 방법론 고찰〉, 〈말씀으로 본 심정과 심정문화〉
- ④ E-mail: taekyongoh@hanmail.net

연구자소개: 이재일

- ① 전공: 교육학 ·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

Abstract

Approach of the Unification Church to Healing

Moon, Sun-ae · Lee, Jae-Il · Oh, Taek-yong

Sunmoo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the Unification Church regarding healing and its methodology. Starting from a general definition of healing,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Unification Church's understanding of health, disease, and heal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ation, Fall, Restoration, and give and receive action. Then the paper explains healing through the doctrine of the Unification Church through the perspective of give and receive action and attempts at a methodological understanding through a theory of counselling.

The Unification Church places importances on family life and recommends the blessing marriage. This research focuses on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marriage heal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healthy family.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if education is a way to prevent problems, counselling is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s. The Unification Church se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s a relationship that is made centering on God's Will and as an encountering that has the value on a universal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wife signifies a relationship of 'we' which goes beyond a simpl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I.'

Based on John Gottman's theory, this research points to love map, emotional bank, and communication metho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s a way to heal marriages. He seeks to solve marriage problems by improving methods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research also introduces cases that applied the method of counselling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the effects of healing.

key words: healing, give and receive action, 'we', love map, emotional bank